

# 북스

Books

## 인간들은 왜 '44 사이즈'에 열광할까

### 이끌림의 과학

바이런 스와미·애드리언 편협 지음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 매력을 느끼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의 무엇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일까? 영국의 심리학자 바이런 스와미와 애드리언 편협이 쓴 '이끌림의 과학'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 매력을 느끼는 이유와 그 신체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진화심리학, 사회심리학, 비교문화심리학 등의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원제 '육체적 매력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Physical Attraction).

예를 들면 어느 문화권에서나 젊은 여성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호감을 산다. 그것은 젊어 보이는 상대가 잠재적 짝으로서의 생산력, 즉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진화심리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젊어 보이는 얼굴을 좋아하는 것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는 '아기 같음'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고 한다. 큰 눈, 작은 코, 둥근 뺨, 가름한 턱은 '아기 같음'의 특징들이다.

반대로 넓은 턱과 수염 같은 남자다운 얼굴을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은 남자다운 특징이 성공과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자다운 얼굴을 한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더 지배적인 지위에 오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한 연구조사에서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작은 눈, 흙쭉한 뺨, 큰 턱 등 성숙한 얼굴의 여배우가 인기를 끌었지만, 사회경제 여건이 좋을 때는 큰 눈, 둥근 뺨, 작은 턱을 가진 '아기 같음' 얼굴의 여배우들이 더 인기였다.

또 다른 연구의 결과를 보자. 요즘 여성들의 신체치수에 대한 환상 즉, 여성의 신체치수 가운데 가장 작은 '44 사이즈'의 아름다움, '35-24-35'의 신화 등은 모든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증거로 아프리카 여러 지역과 남태평양의 상류층 가족들 사이에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유유 찌는 핫간'을 예로 든다. 그것은 사춘기 여자아이들 유유 찌는 핫간이 격리시킨 다음, 모성고 양육의 상징을 드러내는 봉황뿔 뿔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자아이의 결혼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책은 '아름다움 또는 매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들은 외모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본능적인 것인지, 진화의 산물인지 살펴보는 진화심리학에서 출발하면서 사회문화적 이상형과 편견, 미용산업의 지배력 등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으로도 논의를 확장해간다.



루벤스 작 '삼미신'. 루벤스가 그린 여성들은 르네상스시대 유럽의 화려한 관능미를 보이는 통통한 체형이었다.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이상적인' 여성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통통했음뿐 아니라 심지어 과체중이었다. (알미 출판사 제공)

특히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은 주목할만 하다. 수많은 과학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한 인간의 심리에 내재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현대사회의 거대 '패션-미용 복합체'를 향한 비판은 강력한 힘이 실려있다.

저자들은 이 조작된 메커니즘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 (아름다운)본성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알마·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부모님 손 잡아드리세요 이상훈 PD 에세이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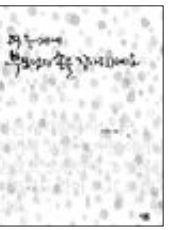
영화감독이자 인기 예능 PD인 이상훈씨가 효(孝)의 의미를 되짚어본 에세이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세요'를 출간했다.

90년대 자신이 연출해 비히트했던 프로그램 '좋은 세상 만들기'를 통해 만났던 많은 이 땅의 부모 이야기와 자신의 추억을 풀어놓으며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효도 32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관심과 정성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바꿀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더 늦기 전에 그래서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드려라"고 권한다.

〈살림·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달궁 아리랑 송수권 지음

동화서사시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썼던 송수권 시인이 '빨치산 투쟁'의 역사를 담은 장편 서사시집 '달궁 아리랑'을 출간했다. 그 동안 빨치산의 역사를 다룬 소설이나 시가 작품 있었지만 이처럼 장편 서사시의 형태를 빌려 창작된 예는 없었다.

"내 시는 눈 내리는 지리산에 바쳐진다 / 그 불타 버린 마을들에 바쳐진다 // 내가 버리고 떠난 마을 / 그 산자락 따라 돌며 / 초록상에 절제사 / 한낱한시

에 통곡이 일어났던 밤 / 그 밤 열두 시에 바쳐진다" ('서시' 중에서)

시집은 '서시'를 비롯해 27편의 '달궁 아리랑' 서사와 작가의 말, 부록으로 '빨치산의 역사'로 엮어졌다. 시의 배경인 '달궁'은 전북 남원 산내면 지리산 자락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마을로 빨치산 토벌작전이 행해져 피난민이 다녔던 곳이다.

시에는 남로당의 아들인 늙은 시인이 가상의 화자로 나오고 여순사건의 피해자인 피아골 뺨노인, 남부군의 아들 윤완이, 남부군 초토화 작전 때 남편 따라 읍내까지 나갔지만 남편 잃고 내리 심년을 살다 돌아왔더라는 노고 할머니 등이 등장한다.

송수권 시인은 "이들 등장인물은 남북 이데올로기와의 무관한 중립자(中者者)들로서의 경계인들이라든 그들은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렁이의 삶을 대변하는 평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설명했다.

고흥 출신인 시인은 1975년 문학사상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집 '꿈꾸는 섬' '수저통에 비치는 저녁 노을' '파천무' 등과 산문집 '송수권 시인의 풍류담 기행' '내나의 맨발' 등을 냈다. 소설시 문학상, 정치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등을 받았으며 현재 순천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있다. (중리나루·1만원)

〈중리나루·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빨치산 투쟁'의 역사 담은 장편 서사시

### 새책



▲물탱크 정류장=199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태기수씨의 첫 번째 장편소설. '물탱크'라는 장소가 현실과 환상을 이어주는 매개로 작용하며, 주인공에게 닥치는 기이한 사건들을 통해 현대사회의 무의미하고 삭막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를 숨 가쁘게 풀어 나간다. 독특한 소재의 몽환적인 이야기들을 속도감 있는 전개로 절묘하게 형상화했다. (생각의나무·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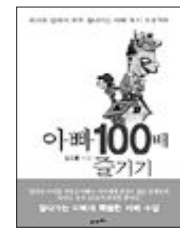
▲명화 속 비밀이야기=안 반 에이크의 '아로 놀리니 부부의 초상'에 등장하는 강아지와 탁자 위의 사과, 신발 한 켤레의 의미부터 기독교 성화에 많이 등장하는 성 세베스티안 시대 때 따라 미소년의 얼굴에 매끈한 몸매로 변모한 이유 등 명화 속 비밀이야기를 흥미롭게 설명했다. (신인문사·1만6000원)



▲검은 밤의 무지개=2010년 월드컵 개최로 이제의 전진속이 느껴지는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시티 오브 조이'의 저자 도미니크 라피에르가 높은 범죄율과 실업률 등 남아공의 슬픈 현재를 가져온 역사와 아프리카트레이트(인종분리정책)라는 괴물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남아공의 현대사를 감동적으로 그렸다. (중앙북스·1만5000원)



▲최수빈=요즘 한창 방영 중인 사극 '동이'의 역사 속 실제인물 최수빈. 사학을 전공하고 역사 관련 글을 인터넷 신문에 연재하는 김중성씨가 친밀 출신임에도 후궁에 올랐던 최수빈의 삶을 전해주는 이야기와 소문의 진위를 살펴, 재구성했다. (부기·1만2000원)



▲아빠100배 줄기기=자녀 교육 전문가 김지통씨가 아버지를 위한 자녀 교육 노하우를 알려준다. 육아와 자녀 교육이 엄마들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아이 키우기가 회사 일만큼 자신없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버들을 위해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아빠만의 육아·자녀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21세기북스·1만2000원)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한국 민주화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 폭력을 이겨낸 비폭력의 신앙인 박영규 목사. 어두운 시절 한평생 길 위에서 신앙을 펼친 박영규 목사의 회고록이자 육성고 백록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너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다. (창비·2만원)



▲꿈부터 써라, 다시 꿈부터 써라=KBS '도전! 골든벨'에서 실업고 출신으로는 첫 골든벨을 울리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김수용씨가 쓴 73개의 꿈을 향한 도전기이다. 지금은 세계 매출 1위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영국 본사에 근무하며 전 세계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김씨가 꿈을 이루기 위해 벌였던 실패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2000원)

〈웅진지식하우스·1만2000원〉

##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 탑부동산투자경매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 124동 맞은편구 숭원대학 정문 앞

• 전국 경매 물건 상시 상담 가능. 특히, 서울지역 투자 고객/자녀 주거 문제 해결 도우미

■ 직원모집 (경매 유경험자)

지역	소재지	면적(㎡)	건물(㎡)	감평가	최자가
광주지역 아파트	구 소재지	281/109	827㎡	6억1천1백	
	동구 소재지	389/87	3천1백		
	서구 소재지	397/120	3천7백4십	1천1백4십	
	북구 소재지	330/155	1천3백2십	4천2백4십	
광주지역 주택	구 소재지	681/788	72㎡	5천	
	동구 소재지	813/852	81㎡	650㎡	
	서구 소재지	848/127	88㎡	520㎡	
	북구 소재지	76/70	4천2백	3천2백	
광주지역 근린주택	구 소재지	221/540	2천7백2십	1천1백2십	
	동구 소재지	212/221	59㎡	39㎡	
	서구 소재지	212/578	29㎡	19㎡	
	북구 소재지	201/322	29㎡	19㎡	
광주지역 근린시설	지역 소재지	208/370	39㎡	29㎡	
	서구 소재지	212/878	46㎡	25㎡	
	동구 소재지	288/800	89㎡	39㎡	
	북구 소재지	542/384	119㎡	79㎡	
광주지역 근린상가	지역 소재지	154/48	48㎡	19㎡	
	서구 소재지	375/113	39㎡	19㎡	
	동구 소재지	410/214	29㎡	19㎡	
	북구 소재지	318/96	29㎡	19㎡	
광주지역 토지 (전·묘·임야·0)	지역 소재지	2000/805	89㎡	29㎡	
	서구 소재지	4500/1379	199㎡	79㎡	
	동구 소재지	803/43	79㎡	59㎡	
	북구 소재지	157/47	79㎡	29㎡	
광주지역 토지 (전·묘·임야·0)	지역 소재지	2000/805	89㎡	29㎡	
	서구 소재지	4500/1379	199㎡	79㎡	
	동구 소재지	803/43	79㎡	59㎡	
	북구 소재지	157/47	79㎡	29㎡	